

# 구리 세영주택조합 민원해소 '강력 권고'

### 시의회특위, 인-허가 관련 문제 확인 오늘, 임시회서 권고 심의 의결 예정

지난 20여 년간 갈등이 이어지고있는 구리 세영지역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구성된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한 위원회는

그동안 세영 주택조합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여부와 각종 문서 감정 등 그동안의 과정과 각 의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시행사 등에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 신동환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우선 피해자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권고하게 됐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이 상정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열리게 되는 임시회에서는 이밖에도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원 기자

# 성남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

###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규제 완화 분당 빌라단지 중 환원 (1종→2종)

성남지역 주민의 숙원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중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분당·판교 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중환 시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연립주택용지 종환원과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등이 성사됐다"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 남양주 주민들 "별내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하라"

### 지난 26일 간담회서 주민 한목소리 시, 주민들 염원... 정부에 전달 약속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별내역-별가람역간 단절구간에 대한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기관단체장, 관계자들이 모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별내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룸에서 열린 별내역과 별내선 연장사업에 대한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별내선 연장 사업은 남양주시의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조속히 통과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간담회는 별내선 연장사업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내동 통장협의회장, 별내발전연합회장 등 별내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과 기관단체장들이 지난 26일 간담회를 갖고 숙원사업인 별내역-별가람역간 단절구간에 대한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동 지역의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도·시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8호선(별내선) 남양주 연장'은 별내역(경춘선, 별내선)에서 별가람역(진접선)까지 중앙역 신설을 포함한 3.2km 단절 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실현하며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오철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그간 단절된 8호선과 4호선을 연결함으로써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하고, 출퇴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메시지를 중앙에 확실히 전달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원 기자

# 김주영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 약속 지켜야"

###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촉구 기재부 간담회서 예타 착수 등 강조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사진)이 지난 26일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현안 간담회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27일 열린 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의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안전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서부권 교통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김포, 검단, 고양시민의 이동권 향상,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



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며 동서방향 6개 철도 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부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인천시 서구 독정역에서 김포를 지나 고양시 일산까지 18.5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천용남 기자

# 시흥시, 수도 필터 변색 원인은 '온수배관·열교환기'

시흥시는 수도물 필터 변색의 주요 원인을 '온수배관·열교환기' 문제로 결론지었다.

29일 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배관동, 장현지구(장현동, 능곡동) 일대 아파트 가정 내 지금까지 이어진 필터 변색 민원에 따른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정수장-배수지가정 내 수질검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WATER 119'를 통해 다각적으로 조사·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관동과 장현지구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정수장-배수지가정 내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저수조와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 조사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고, 수질검

사에서 발견, 철 등 심미적 영향물질도 '불검출' 됐다.

다만, 냉수와 온수에 필터 변색 시험을 진행한 결과 온수 필터만 변색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파트 열교환기나 온수배관의 상태가 필터 변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온수배관 및 열교환기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변색 원인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민원 기자

# 포천시, 내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유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

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만 기자

##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